도,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성료

노·관·정 함께 노동의 가치 되새겨… 모범 노동자 30명에 도지사 표창 수여
김 지사,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생계 책임지는 신성한 생존의 기반"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기기 위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지난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원택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노총기 및 산별 회원조합기 입장, 모범노동자 표창(도지사 표창 30명 포함), 경과보고, 대회사, 축사 등으로 구성돼 차분하면서도 뜻깊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직접 모범 노동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축사를 통해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엄한 행위이며,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개인과 사회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누구나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상생과 연대의 뜻을 피력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전북의 의지를 확인하고, 지역 노동계와 행정, 정치권이 함께 협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와 상생의 노동문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25일 아름다운웨딩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문승우 도의회 의장, 한국노총 전북본부 및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노동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함께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2026년도 산림소득 공모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산림소득 공모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임산물 △생산분야와 △유통·가공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다.

임산물 생산분야는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에 대해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임산물 유통·가공분야는 임산물 유통체계의 규모화·현대화 지원을 위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와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확대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에 대해 오는 5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산림소득공모 지원대상 품목은 총 79종으로, 호두·대추 등 수실류(14종)와 표고버섯 등 버섯류(8종), 더덕, 도라지 등 산나물류(12종), 산양삼, 독활 등 약초류(12종),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등 약용류(20종), 야생화,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류(6종), 수목부산물류 (1종) 이다.

신청자는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지의 시군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적정성·타당성 등을 평가한 뒤, 전북도와 산림청·임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7~9월 중 최종 선정된다.

전북자치도는 2026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 13개 산림조합, 임업인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현 정부 추경안, 농업 포기 증명"

민주 이원택 의원, 농식품부 추경 편성 지적
"도심형 사업,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어"
국회 농해수위, 농업민생 예산 증액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어업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기관의 추경예산안(5,612억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예산안이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민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채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는 도심형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며, "실질적인 농업경영 안정이나 구조개선과 관계없는,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들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 기후재난 속에 절박한 상황인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농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한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해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828억 8,100만원 등 총 2,239억6,400만원 규모의 농업민생 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또한,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으로 지자체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사업 106억4,800만원 등 총 1,855억4,400만원에 대해서도 증액 의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6월 13일 개최

도청 공연장서, 도내 15개 소방서 대표로 유치부 7팀 · 초등부 8팀 참가
"소방안전 의식 고취 · 소방안전 중요성 깨우치는 소중한 기회 될 것"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오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도민의 소방안전 의식을 높이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주관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 광주호남지부가 후원한다.

경연에는 도내 15개 소방서를 대표하는 유치부 7팀과 초등부 8팀이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소방동요와 창작곡을 합창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팀은 각 소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며, 율동과 무대연출을 더해 흥미롭고 창의적인 무대를 펼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장상, 한국화재보험협회 광주호남지부장상 등 총 17점의 상장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치부와 초등부 각 1팀은 오는 9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참가팀들이 최선을 다해 멋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서도 대회 당일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2002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23회를 맞이했으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소방안전 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미주한인상의 총연합회와 상생협력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한-세르비아 의원친선외교 첫 행보

민주 김윤덕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세르비아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친선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에딘 제를레크 세르비아 국회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 대사를 만났다.

두 외교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은 김 의원은 "세르비아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35% 정도가 될 정도로 많고, 젊은 정치인이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세르비아 정치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발칸 지역 내 우리의 주요 협력국인 세르비아와 작년 수교 35주년을 맞이했고, 2023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양국간 교류의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에딘 제를레크 부의장과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양국간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양국간의 의회외교의 지속적·정기적 교류 및 협력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간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르비아에서 개최되는 '2027 베오그라드 인정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분야 행사 등 '인류를 위한 놀이(play for humanity)'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인 세르비아 엑스포에 꼭 방문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세르비아가 활발한 국가간 교류가 이루어져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회외교에 함께 힘을 모으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한창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방식 형평성 문제 등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한창이다.

먼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지난 25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현재 JB지산학협력단 사무실 및 회의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인근 시세 대비 2-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연구 건수나 특허 출원수 등의 수치보다 실질적 변화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성과 분석을 당부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을 심의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억 3,000만원 규모의 기동대 주요장비 구매가 군산 지역에 집중된 반면, 추진 근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도지사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의 부담 없이 도비만 투입되는 것은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예비군 사업은 지역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되, 책임과 부담 역시 공정하게 분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가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인 점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소방본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하며, 사업 간 중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교육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교육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사업의 구체적 설명 부족과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따져 묻고 문제 예산임을 지적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다른 의원들과 공통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충분히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법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안에 담아 의회 심의를 급하게 통과시키려 하는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고,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됐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전부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환경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정읍 우드칩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도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줘 주민 반발을 초래한 것은 문제"라며, "전북의 환경은 도가 지켜야 하며, 절차만 앞세운 행정은 주민 무시"라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영화제 앞두고 고위험병원체 선제 검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30일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영화관 및 영화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개막 전날인 29일, 관람객이 밀집할 주요 구역에서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해 탄저균, 페스트균, 야토균, 유비저균, 브루셀라균, 두창바이러스 등 총 6종의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생물학적 테러 위협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고위험 병원체의 공기 전파 여부를 정밀 분석해 도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남원춘향제·전주세계소리축제·임실치즈축제 등 지역 주요 축제를 중심으로 생물테러 대응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LX, 디지털 국토관리 효율화 지원

한국환경보전원-한국수자원공사, MOU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환경보전원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보상 협력을 통해 수자원 시설 건설과 수변 환경 관리 효율화 지원에 나섰다.

LX는 지난 24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는 한국환경보전원과 '지적공간정보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LX 본사에서는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LX는 양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적 및 공간 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지적 및 공간 정보 분야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교육 협력 △지적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공동 대응 등을 추진한다. /오상근 기자